



平山申氏宗報

(04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평山申氏大宗中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春川墓所 033-243-2076
 表忠齋 053-985-1330
 龍山壇 061-363-1495
 德陽書院 010-8762-7799



發行人 申吉淳
 編輯人 申吉淳
 印刷人 宋永哲



평산신씨 인터넷족보 한글화 번역 작업 계속



평산(平山)은 황해도(黃海道) 남동쪽에 위치한 지명으로 본래 고구려(高句麗) 때 태국군(大君國) 또는 다화실(多和室)이었던 것을 신라(新羅) 경덕왕(景德王)이 영동(永東)으로 고쳤으며, 고려(高麗) 초에 평주(平州)로 바꾸고 1272년(원종 13) 부흥군(復興郡)에 합병되다가 중종(中宗) 때 다시 복구하였다. 조선(朝鮮) 태종(太宗) 13년(1413년)에 평산(平山)으로 바꾸고 도호부(都護府)로 승격하였으며...

[평산신씨 홈페이지]

대중중에서는 2015년도에 발행한 을미대동세보를 인터넷 족보로 제작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대중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400여명이 신규가입하고 조회는 이만 오천여명이 넘는 종원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족보검색은 물론 평산신씨의 내력을 비롯하여 시향, 제례, 훌륭한 역대 인물, 유물 등 수많은 자료를 열람하고 있다. 방문 종원들을 보면 5,6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젊은 층과 7,80대 어르신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교포들도 수시 뿌리를 찾고 조상을 알고자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으며, 또 타 문중에서도 조상의 혼인관계나 외손을 찾고자 우리 홈페이지 방문을 하고 문의도 잇따르고 있으며, 또 우리조상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어서 평산신씨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그 동안 평산신씨 홈페이지(인터넷 족보)는 여러 해 준비를 해 오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급변하는 주위환경에 따라 부단히 노력하면서 갈고 다듬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금년 4월부터는 족보 한글화 번역 작업에 박차를 가하여 보다 많은 종원들이 어려운 한자에서 벗어나 쉽고 편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년 말까지는 인터넷족보

한글화의 모든 작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핸드폰에서도 홈페이지 이용이 현재도 가능하지만, 더욱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소지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족보의 수단 신청(신규등재, 수정, 삭제 등)은 한글화작업과 관계없이 수시로 신청 받고 있으니 종원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신청방법과 신청서 : 홈페이지 → 전자대동보→수단신청안내)

평산신씨의 근간이 되는 우리족보가 명문가인 평산신씨 문중의 구심점이 되어서, 종원 모두가 송조돈목(崇祖敦睦)하고 대대손손 잘살고 번영하는 터전의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한다.

대중중 장학생 선발인원 확대

2019년 3월 27일 대중중 정기총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대중중 장학생 선발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선발하기로 하였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매년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게 된다. 매년 1월 장학생이 되고자 신청하는 상당한 실력의 인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함이 무척이나 아쉬웠으나 이번의 조치로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대중중의 장학 사업이 계속 발전하여 후손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장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여 사회의 중추가 되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은 물론 평산신씨 가문에도 영광이 되기를 기대한다. 종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 ▶ 선발인원 : 20명
- ▶ 지급액 : 100만원×2개학기 - 총예산 매년 4,000만원
- ▶ 신청자격 : 대중중족보(을미대동보, 인터넷족보)에 등재된 종원, 4년제 대학 2,3,4학년, 일정 학점이상자
- ▶ 신청일 :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 ▶ 기타 : 홈페이지 (대중중소개 - 중중사업 - 장학사업) 참조

도포서원 복원 고증 학술대회 참석



[대수 제례위원의 발표 모습]

춘천시 방동리 시조 장절공(壯節公) 묘역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조님을 배향하고 수호하던 도포서원(道浦書院)이 1868년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철거된 후 현재까지 빈터로만 남아 있어 이에 대한 복원(復元)과 고증(考證) 학술대회가 사단법인 춘천역사문화연구회가 주최하고 춘천시의 후원으로 2019년 5월 19일(금) 오후2시 춘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동연구회 이사장, 춘천시장, 춘천의회회장 등 춘천시 관련 공무원들과 춘천지역 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석하고 또 평산신씨 종원, 선산김씨 종원 등 수 많은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30분 동안 개최되었다.

우리 평산신씨 종중에서는 길순(吉淳, 사간공파 34세) 대종중 도유사와 전직원, 대종중 부도유사인 근택(根澤, 사간공파도유사), 철수(澈秀, 정언공파도유사), 동은(東銀, 강원화수회 전회장)과 흥균(興均, 대종중제례위원장), 또 대종중 사적위원인 현대(鉉大, 용산단 도유사), 인현(仁鉉, 덕양서원 도유사), 그리고, 현대(鉉大)제정공파도유사, 용철(龍澈)강원도화수회장, 형식(亨湜)광주전남화수회장, 용환(龍桓) 장군단사무처장, 강원도화수회 등 많은 우리 종원들이 참석하여 주최 측의 찬사를 받았다. 이날 대수(大秀, 정언공파 31세, 강원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대종중 제례위원이 발표자로 참가하여 세심하고도 진지하게 진행하여 눈길을 끌기도 하였다.

도포서원은 1650년(효종1년) 외예(外裔) 춘천부사 박장원(朴長遠)이 장절공 묘소 밑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장절공의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제향을 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1694년(숙종20년) 강원도관찰사 신양(申懷, 사간공파 23세)이 도포서원이 너무 퇴락한 것이 민망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상촌 신흙(申欽, 정언공파 20세)과 외손(外孫) 우정 김경직(金敬直)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다시 10년 후 신한장(申漢章, 문희공파 25세)이 춘천부사로 부임(1708~9년)하여 본인의 녹봉에서 염출하여 서원의 면모를 이 때 제대로 갖추어 재건하였다고 한다. 그 후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철되었다.

이날 대종중 길순도유사는 인사말에서 도포서원의

조속한 복원에 우리 평산신씨 종중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하면서 하루 바빠 이루어져서 춘천시 지역발전은 물론 후손으로서도 간절히 원하는 바 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참석하신 종원들과 부도유사, 파종중도유사, 화수회장, 특히 전날 춘천에 도착, 도포서원에 대한 대단한 관심으로 참석한 용산단 현대도유사, 덕양서원 인현도유사, 형식 광주전남화수회장, 용환 장군단사무처장 등 4분에게는 감사와 치하의 말을 각별히 하였다.

이날 대종중에서는 전세버스를 대절하여 종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중식도 한림대학교 교수식당을 이용하였으며, 일정이 끝난 후에 강원도화수회 용철회장이 주선하여 별미인 '춘천막국수'로 저녁식사를 하고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해공 신익희 선생 제63주기 추도식 참례



지난 5월 5일(일요일) 11:00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계곡 아늑한 곳 해공 신익희 선생의 묘전에서 제 63회 추도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가운데는 선생의 커다란 영정이 위치하고, 좌우에는 대통령 회환을 비롯하여 국회의장, 헌정회장, 광복회장 등 수많은 회환들이 즐비한 가운데 고인의 유족과 헌정회장,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장, 국회대표, 국가보훈처, 국민대학교와 동문회, 경기광주문화원과 광주시대표, 강북구청장과 직원일동, 평산신씨 대종중 길순 대종중도유사, 상식 명예도유사, 용수 고문, 서울시화수회원 및 종원 등 각 계 각 층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였다.

해공 익희 선생(문희공파 31세)은 1894년 7월 11일(음 6월 9일)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대학을 고학으로 마친 후 귀국하여 교직에 계시다가 일제의 침략으로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3.1운동 등 독립운동을 주도하다가 일본경찰의 체포령을 피해 중국으로 망명,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제1회 의정원 의원을 시작으로 내무총장 서리, 임시의정원 부의장, 국무원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시다가 일본의 패망으로 조국의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고, 귀국하여 국민대학을 창립하기도 하였다.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서 해방 후에는 정치인으로서 우리민족에게 끼친 공덕은 이루 다 열거할 수도 없지마는 그 가운데서도 임시정부와 본정부의 수립과정에서 독립, 자유, 평등, 정의를 염원한 백성들의 뜻과 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속에 국훈으로 구현시키고, 대한민국을 백성의 나라, 국민의 나라로 설계하신 일은 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혁명이였다.

그렇게 선생은 일제 강점시에는 조국 광복을 위한 항일 투쟁으로 반평생을 받쳐 오시다가 해방 후에는 반공 투쟁과 민주투쟁으로 애국애족을 실천하시고 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애를 쓰셨고, 특히 제헌국회의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큰 뜻을 품고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당선이 유력한 시점에서 호남 유세차 전주로 가는 도중 이리역(지금의 익산역)에서 심장마비로 서거하셨다.

추도식은 매년 선생이 작고하신 기일인 5월 5일에 수유리 묘전에서 유가족과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모제를 봉헌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5년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의장 주관으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

신사임당(申師任堂, 문희공파19世) 제468주기 추모제 참제



2019년 6월 19일(수요일 음력 5월 17일) 11:00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紫雲書院 : 울곡 이이 유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25호)에서 신사임당 제 468주기 추모제가 봉행되었다.

매년 음력 5월 17일은 모든 여성의 사표가 되고 학문과 예능을 고루 갖춘 조선시대 여류 문인이자 화가, 서예가, 현모양처이며 영원한 어머니로 추앙받고 있는 사임당께서 서거 하신 날이다.

신사임당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동재 입지재(立志齋) 제전 양옆에는 대중중 길순 도유사의 추모화환을 비롯 여러 개의 화환이 줄지어 있고 취악대의 연주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분정이 발표되고 곧이어 집례의 창홀에 따라 초헌관의 초헌례를 시작으로 한 시간에 걸쳐 봉행되었다.

신사임당은 당호(堂號)이고 본명은 신인선(申仁宣)이다. 시임당(媿任堂), 임사재(妊思齋)라고도 하였다. 외가인 강릉 북평촌에서 아버지 명화(命和, 문희공파 18세)와 어머니 용인이씨 사온(思溫)의 딸 사이에 둘째 딸로 태어나 성장, 19세에 덕수이씨(德水李氏) 원수(元秀)와 혼인하여 그 유명한 울곡(粟谷) 이이(李珣)를 낳고 기르신 어머니이다. 그 후 울곡의 나이 15세 때 1551년(명종 6년) 48세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묘소는 자운서원 가족 묘역에 모셔져 있다.

사임당은 바느질, 자수와 함께 시, 서화에 모두 뛰어났었다, 글씨는 초서(草書)를 잘 썼으며, 그림은 산수, 포도, 묵매, 초충에 능하였다. 특히 초충도(草蟲圖)는 조선 초기의 이 분야를 대표했으며, 토속적인 색감과 소재를 통한 천진난만하고 정감어린 화풍(畫風)은 한국적(韓國的) 정서(情緒)를 짙게 반영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자운서원(원장 최복현)이 주최하고 신사임당 추모선양회(회장 허자이)에서 주관, 파주시청 및 문화원 후원으로 기관 및 단체와 유림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대중중에서는 상무 문화부장이 참례하고, 문희공파 종중 대표로 현덕 서울시화수회장과 평균 부회장, 옥균 부회장, 정인공파 현기 부회장, 또 사간공파 화당 공종중에서 도순, 효순종원 등 여러분이 참례하였다.

2019년 상반기 인터넷 족보 수단비 파별 배분

금년도 상반기에 접수한 인터넷 족보 수단 신청에 대하여 지난 7월 1일 인터넷 족보에 정상적으로 등재하고 수단비는 대중중과 파종중의 배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되었다.

- 가. 총접수량 : 374명
- 나. 접수 수단비 : 11,480,000원
- 다. 배 분 1) 대중중(30%) : 3,444,000원
(등재비등 제반비용에 사용)
- 2) 파종중(70%) : 8,036,000원

라. 파별내역

- 밀직공파 105,700원 - 현령공파 9,100원
- 문희공파 2,170,000원 - 한성윤공파 5,386,500원
- 제정공파 252,700원 - 판사공파 112,000원

▶ 인터넷족보 수단 신청 요령

(신규, 수정, 삭제, 사진등재 등)

종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같이 파종중에 제출하면 파종중에서는 전체를 취합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대중중에 보내고 수단비는 지정된 대중중 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始祖 配享地 巡廻 1회]

태사사(太師祠)

별칭 : 太白山城祠宇, 城隍祠



태사사(太師祠)는 평산부(지금의 황해북도 평산군)의 북쪽 10리에 있으며 장절 신공(壯節 申公)과 충절 유공(忠節庾公), 무공 복공(武恭卜公)의 철상(鐵像) 삼구(三軀)를 봉안하였는데 임진 및 정유년의 병화(兵火)에 묘우(廟宇)가 불타 헐리었더니 인조 14년 병자(서기 1636)에 동회공(東淮公)이 충익공(忠翼公)과 더불어 재력을 모아 사묘(祠廟)를 중창하고 정조20년 병진(서기 1796)에 삼태사사(三太師祠)로 사호(賜號)되었다. 당초에 예조판서 민중현(閔鍾顯)이 사호를 찬(撰)하여 올리기를 기공사(紀功祠)라 하였는데 임금이 삼태사사로 고친 것이다. 동21년 정사(서기 1797)에는 무열 배공(武烈裴公)을 추향(追享)하고 태사사(太師祠)로 고치었다.

평산(平山)은 본시 고구려(高句麗)의 대곡군(大谷郡)인데 다지홀(多知忽)이라고도 하였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때에 영풍군(寧豐君)으로 고치고 고려조에 평주(平州)로 고치었는데 별호(別號)는 연덕(延德)이요 또 동양(東陽)이라고도 하였으며 태종13년(서기 1413)에 평산으로 예개(例改)되었다.

산성의 북쪽 30리쯤에 주상동(鑄像洞)이 있었는데 속전(俗傳)하기를 여기에서 철상(鐵像)을 주조하여 여러 태사를 산성(山城)안에 봉안했었는데 임진 및 정유년에 병화를 입었다고 한다.

인조(仁祖)14년 병자년(서기 1636)에 중창한 후로 영조(英祖) 34년 무인(서기 1758)에 이르러 여러 종인들이 합심하여 재력을 모아 10여 칸을 지었고 정조(正祖)21년 정사년(서기 1797)에는 후손 희(禧)와 빈(賓)이 제종(諸宗)들과 합모(合謀)하여 강당, 재실과 전사청을 모두 창신(創新)하였는데 무릇 30여 칸이었다. 사액(賜額)된 후로는 사림(士林)들이 주관해 오다가 후에 다시 본 손들이 주향(主享)하여 춘추로 끊이지 않았다.

순종(純宗) 신유년(서기 1921)간에 일정(日政)에서

성지(城地)를 국유(國有)로 편입하려고 하자 평산중중에서 대표 수인(數人)을 선출하여 그 연혁(沿革)을 증언하고 항의상지(抗議相持:이의를 제기하며 고집하고 양보하지 않음) 한 지 3년 만에 완전히 우리 신씨의 소유가 되었다.

지난 경진년(서기 1940) 원장 원희(元熙) 재임 시에 후예손(後裔孫) 현기(鉉琦)가 성심을 기울여 모든 비용을 독담(獨擔)하여 태사사 동쪽 수무지(數武地)인 염창기지(鹽倉基地)에 사적비(事蹟碑)를 세웠는데 승지 헌균(憲均)이 찬문(撰文)하고 현모(鉉謨)가 찬명(贊名)하고 석률(錫律)과 동륜(東崙)이 그 역사(役事)를 감독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을유(서기 1945) 광복후(光復後)에 소군(蘇軍)이 이수(虯首:용모양의 머리부분)의 우각(右角)을 총파(銃破:총에 의한 파괴)하고 또 6.25 사변 때에는 태사사의 정묘(正廟)와 강당과 재실이 모두 불타 버렸으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루 빨리 남북이 통일되어 사료를 연구하여 정확한 역사가 밝혀지기를 바란다.(자료 : 평산신씨 천년사)

춘천 시조 장절공

추향대제(秋享大祭) 안내

2019년 10월 7일(음력 9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춘천시 서면 방동리 시조 할아버지 장절공(壯節公) 신승겸 장군 묘역에서 추향대제(秋享大祭)를 올리고자 하오니 많은 종원들이 함께 동행 참배하여 시조님의 정기(精氣)와 음덕(陰德)을 듬뿍 받아오도록 당부 드리며, 10인승 이상 차량을 대절하여 오시는 단체는 사전에 대중중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개인이 이용하는 교통은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사 참배 찾아오는 길 -

-대절버스 : 춘천역 2번 출구 10:00(1회)

경춘선 전철(상봉-춘천), ITX 열차(용산, 청량리-춘천역)를 타시고 종점 춘천역에서 하차하여 2번 출구로 나오면 10시에 출발하는 신승겸장군 묘역 행 대절버스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 기차 시간표

· 전철 : 상 봉 7:45 ⇨ ⇨ ⇨ 춘천도착 9:10(공휴일)

상 봉 8:06 ⇨ ⇨ ⇨ 춘천도착 9:36(공휴일)

· ITX(청춘열차) :

용 산 8:20 ⇨ 청량리 8:38 ⇨ 춘천 9:38

청량리 8:13 ⇨ ⇨ ⇨ 춘천 9:13

(가실때에는 12:15, 14:10에 82번 시내버스를 묘역 주차장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 네비게이션 주소 : 장절공 신승겸 장군묘역(춘천시 서면 방동리)

■ 연락처 : 대중중(02-776-6111, 6151) ■

2019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안내

대중중에서 선정한 2019년도 장학생들에게는 2학기 장학금이 8월 31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해당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1학기 성적증명서 각 1통씩을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고, 장학금을 수령하면 학교에 등록하고 영수증 사본을 9월 15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이나 성적이 미달(이전학기 성적보다 10%이하)시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회수)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학증명서1통과 1학기 성적증명서 1통
..... 8월 15일까지 제출
- 2) 등록금 영수증사본 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 1통
..... 9월 15일까지 제출
- 3) 보낼 곳 : (04555)서울시 중구 수표로 22 (아세아빌딩 7층)

평산신씨 대중중 <문의전화 : 02)776-6151>



2019년 상반기 장수종원 축하

대중중에서는 2019년도 장수종원 축하계획에 의거, 1월 1일 현재의 을미대동보에 등재되어 있는 卍壽(졸수:90세)이상 되신 종원에 대해 파중중도유사와 시·도화수회장의 추천을 받아 다섯 분의 어르신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축하의 금일봉을 전달하였다. 장수 어르신에 해당되시는 종원께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어 파중중이나 시·도화수회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축하받으실 수 있다.

*** 축하 받으신 다섯 어르신**

- 善均(선균) 1925년 1월 8일생 정언공파
- 載和(재화) 1926년 11월 14일생 한성윤공파
- 淳鐸(순탁) 1929년 1월 13일생 판사공파
- 一均(일균) 1929년 4월 22일생 정언공파
- 鉉鼎(현정) 1929년 6월 14일생 정언공파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사진 1매
- ③ 을미대동보 또는 인터넷 족보 본인등재 사본 1부
- ④ 자기소개서(종중 활동상황, 장수비결 등 해당사항) 1부

종보 구독, 주소변경 : 02-776-6151, 6111

파중중 · 화수회 소식

신각(申恪)장군 추모제 참여 (밀직공파 종중)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1592년 그 해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 해유령고개에서 왜군 70명을 전멸시켜 임진왜란 최초의 육지전(陸地戰) 승리자였지만 안타깝게도 도원수의 모함으로 참형을 당하였던 신각(申恪, 밀직공파 21世)장군의 추모제(追慕祭)가 해유령전첩비(蟹踰嶺戰捷碑)와 사당 충현사(忠顯祠, 양주시 백석면 해유령 고개)에서 2019년 5월 19일(일)11:00 양주시부시장(김대순), 양주시 의회의장(이희창)등 지역기관 및 단체와 많은 유림들, 각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청과 충현사제전위원회(忠顯祠祭典委員會)주관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양산전투가 벌어진 경기도 해유령은 현재 경기도 양주시 백석에서 파주 광탄으로 넘어가는 국도상의 나지막한 고개로 임진왜란 때의 승첩지이다. 당시 신각장군의 승리는 길이 막혀서 조정에 전달되지 못한 상태에서, 임진강에서 도망쳐 산골짜기에 숨어있던 도원수 김명원이 한강 패전의 책임이 자신에게로 돌아오자 패배의 원인이 자신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도망간 신각에 있다고 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조정에서는 도성을 버리고 북으로 피신하던 중이라 사실의 진위를 밝힐 여유가 없는데다가 전쟁 중에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신각의 처형을 결정하였다. 후에 김명원의 보고가 허위로 드러나고 양주전투에서 승리한 신각의 공이 알려지자 조정은 신각에게 내려진 참형의 명을 거두고자 하였으나 이미 신각은 참살 당한 후였다. 그의 처 정씨는 남편이 죽자 장사를 지낸 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였는데 그 후 정조때 열녀문이 세워졌다고 한다. 신각장군의 양주전투는 임진왜란 초기에 계속 패배를 거듭하던 때 이룬 최초의 승리로 기록된다. 해유령전첩비는 1977년에 세워졌으며 그 옆의 충현사(忠顯祠)는 1991년에 세웠다. 또 제향(祭享)은 1980년 4월에 처음 이루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당시 신각장군과 함께 싸웠던 유도대장 이양원(李陽元), 함경병마절도사 이훈(李渾)등 세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양력 5월 19일 양주시청주관으로 추모제가 거행되고 있다. 이 유적은 경기도기념물 제39호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이날 밀직공파중중 인식도유사는 충현사제전위원회 전 위원장과 연락을 하여 전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고 어렵게 참석하여 고인의 명복을 기렸다. 또 인식도유사는 “장군의 종손을 찾아 보았으나 그동안 찾지를 못하였다고 하면서 본인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연락 바란다”고 하였다.

▶신각장군의 계보 : 대동세보(을미년)2권 (6P)

【아(雅, 15세, 밀직공파조)…각(恪, 21세)→기성(起性, 22세)…석흥(錫興, 30세)→중희(重熙, 31세, 1905년생)→용균(龍均, 32세, 1921년생)→현문(鉉文, 33세, 1942년생)→명철(明澈, 34세, 1970년생)】

연락처 : 인식 밀직공파중중 도유사 (010-5383-0522)

忠·孝·祖 교육 실시 (정언공파 중중)



정언공파(도유사 澈秀)중중에서는 지난 6월 15일 제 7회 충효조교육(忠孝祖教育)으로 전남 곡성지역의 시조 약강(嶽降) 유적지 용산단(龍山壇)과 덕양서원(德陽書院) 등을 참배하는 행사를 가졌다.

총 84명의 종원들이 버스 2대와 승용차편으로 곡성 시내에서 점심 식사를 먼저 하고 덕양서원을 거쳐 용산단을 참배하였다. 시조님이 도와주시는 듯 날씨도 덥지 않고 맑아 종원들 모두 즐거운 마음이었다.

이미 자료를 통하여 아는 바와 같이 시조님은 위왕대사(爲王代死)하시어 역사에 보기 드문 충절의 표상이며, 고려를 거쳐 조선과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추앙을 받으시고, 태어나신 곳, 활동하신 곳, 전사하신 곳, 묻히신 곳뿐만이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곳에서 추숭(追崇)을 받고 계신 분이라는 것과 시조님의 약강 유적지와 덕양서원에 대하여 조금은 알고 있었으나, 덕양서원仁鉉도유사님의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으로 서원에서 무장(武將)이신 우리 시조님만을 모시는 유일한 곳이라는 설명에 더욱 시조님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으며,

서원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는 도유사님 말씀에 감명을 받았다.

龍山壇에서는 鉉大도유사님의 설명을 듣고 시조님의 유택은 물론 사당까지도 천하의 명당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후손들이 모두 시조님의 음덕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새로 성역화 사업을 하고 있는 장군단도 같이 참배할 예정이었으나 태안사 스님들의 여름 수련(夏安居) 중이라 출입을 금하는 바람에 불발된 것이 무척 안타까웠다. 1100년간 우리 시조님의 유적을 지켜준 태안사에 감사를 드리지만, 후손들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언공파의 ‘忠·孝·祖 교육’은 201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파종중 차원의 뿌리찾기 교육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조상님들의 업적을 통하여 平山申氏로서의 긍지를 갖고, 충의와 효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동시에, 서로 돕고 나누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국사 임란공신 추모제 참례 (정언공파 중중)



임란공신(壬亂功臣) 추모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산화하신 임진왜란의 호국영령들의 높은 뜻을 추모하고, 그 업적을 자손만대에 전하고자 해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음력 4월 13일에 호국사(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367-1)에서 개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장절공의 후손이신 신희(申欽, 정언공파 20세 선무원종공신 1등), 신점(申點, 21세 사간공파 선무공신 2등) 등 두 공신을 비롯한 총 403위의 임란공신 위패(位牌)가 모셔져있다.

금년에도 5월 17일(금) 11:00 제427週忌, 임란공신 추모제가 사단법인 임란공신 충의선양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보령시, 성균관의 후원으로 각 공신들의 후손들과 관련단체 및 수많은 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거행되었다.

정언공파 중중에서는 금년부터 두 분 선조님들의 충의를 선양하는데 적극 앞장서기로 하고 사단법인 임란공신 ‘충의선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하고 회비와 접수비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이날 행사에는 현철(鉉澈) 종원 등 여러 종원들이 참례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를 올렸다.

판원사공(判院事公) 종중(宗中) 향사(享祀) 봉행(奉行)



봄의 끝자락인 2019년 4월 28일 11시30분 하늘은 잔뜩 흐리고 비가 내릴듯 한데 조상을 공경(恭敬)하는 효성(孝誠)스런 자손들이 북한강(北漢江)기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산수골 정상 승록대부판중추원사공(崇祿大夫判中樞院事公)의 묘소에서 향사를 봉행하였다.

향사 전에 근택(根澤)도유사는 참석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오늘 향사를 봉행할 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제관으로 초헌관은 현갑(鉉甲, 加平景說公宗中都有司), 아헌관은 현대(鉉大, 龍山壇宗中都有司), 종헌관은 동일(東一, 大丘梅谷宗中副都有司), 집례(당상) 근택(根澤, 判院事公宗中都有司), 집례(당하) 동하(東夏, 判院事公宗中副都有司), 축관 영섭(榮燮, 璿公宗中楊平會長)을 분정하여 집례(執禮)의 창홀(唱笏)에 따라 엄숙(嚴肅)한 가운데 제례(祭禮)를 봉행하였다.

12시 30분경 향사를 마친 후 점심식사를 하고 2020년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모두 하산하였다.

야외 행사는 날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데 이날은 비가 올듯하면서도 비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햇빛을 가려 주어 행사에는 좋은 날씨였다. 주관한 근택도유사는 좋은 날씨를 주신 하늘님과 조상께 감사드린다고 하였다.

一. 奉行 考位

十六世祖考：승록대부(崇祿大夫) 판중추원사공(判中樞院事公) 諱 敬宗

配位 貞敬夫人 淸州鄭氏

十七世祖考：호조참의(戶曹參議) 금부도사공(禁府都事公) 諱 守祉

配位 淑夫人 順興安氏

十七世祖考：형조도관(刑曹都官) 정랑공(正郎公) 諱 守福

配位 恭人 星州李氏

十八世祖考：선약장군공(宣略將軍公) 諱 永保

配位 令人 西原韓氏

十八世祖考：사의양지현감(司議陽智縣監) 장락원첨정공(掌樂院僉正公) 諱 永祿

配位 淑夫人 坡平尹氏

전서공파 종중 향사 봉행 및 정기총회



신록(新綠)에 봄 향기가 그윽한 4월 마지막 일요일 2019년 4월 28일 11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무주동(빛고개) 전서공파조(派祖) 휘(諱) 호(灑, 15世) 제단에서 전서공파(典書公派) 종중 태화(泰華, 31世) 도유사를 비롯한 약 50여명의 자손들이 모여 2019년도 향사를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동석(東錫, 김포), 아헌관 현섭(鉉燮, 춘천), 종헌관 선용(善龍, 남원), 대축에는 태화도유사, 집사로는 형철(亨澈, 청평), 용철(龍澈, 청평) 등이 분정되어 광순(光淳)고문의 집례로 엄숙하고 경건하게 제(祭)를 올렸다.

전서공 파조(派祖)이신 호(灑)께서는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자 관직을 버리고 관향인 황해도 평산에 은거하면서 일체 세사일을 외면했다. 여러 차례 임금 불렀으나 불응하고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의 후손으로 어찌 다른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하시면서 초지일관 벼슬에 나가지 않고 초야에 묻혀 학문과 덕을 닦으면서 지조를 지키셨다. 그 뜻을 기려 두문동서원과 동양서원에 배향되고, 묘소는 황해도 연백군 패궁면 생금리에 있으며, 가평에 있는 단에서는 매년 양력 4월 마지막 일요일에 향사를 봉행하고 있다.

이날 향사가 모두 끝난 후 2019년 정기총회가 곧바로 이어졌다. 식순에 따라 전년도 업무보고와 감사보고가 이어지고 전년도 결산과 금년도 예산안도 모두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임원선거에서는 태화도유사 후임으로 동석감사가 추대되어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두분의 간단한 인사말을 끝으로 폐회를 선언하였다.

율리사(栗里祠) 춘향제(春享祭) 봉행

2019년 4월 20일(토, 음력 3월 仲丁日) 11:00 충남 서천군 비인면 소재 율리사(도유사 昇容, 충남문화재 제303호)에서 유림과 종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향제가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율리사(栗里祠)는 시조 장절공(壯節公) 신승겸(申崇謙) 장군을 주벽(主壁)으로 하여 후손인 13세 현(賢, 不諼齋), 14세 혼(琿, 翰林), 15세 연(演, 大提學公派祖)과 15세 온수감공파조(溫水監公派祖)이신 기(淇), 또 23세 철(澈, 溫水監公派), 23세 오(澳, 溫水監公派) 등 7



을 비롯하여 문정공 신현(申賢, 13世), 윤곡 원천석(元天錫)등 3분의 위패를 모시고, 매년 음력 3월 중정일(仲丁日)에 향사를 봉행한다. 이날 초헌관에는 윤유덕 사천향교 전 전교, 아헌관에는 신중철 전창원화수회 회장, 종헌관에는 신현기 전 거창군의회 의장이 맡아서

인의 선조 위패가 모셔진 사당으로 원래는 문중사우로서 1851년 세덕사(世德祠)로 시작되었다. 당시는 신승겸 장군과 신철, 신오 등 3위를 제향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1900년에 유림의 공론으로 현재와 같은 사우로 발전되었다. 이 사우와 관련하여 평산신씨가 비인지역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말 조선초기에 16세 신용(申龍, 온수감공파조 申淇의 아들)이 이곳에 은둔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율리사는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18년 다시 세워졌다.

이 날 구한완(丘漢完) 집례로 초헌관에는 이병직(李秉直, 비인면장), 아헌관에는 신동신(申東信), 종헌관에는 신완섭(申完燮)종이 분정되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 7위의 신위 전에 분향, 헌작, 독축, 재배를 마치고 음복례와 망요례, 축문 소각 순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봉행 후 제관 전원은 함께 오찬을 같이하고 유림들은 먼저 귀가하고 본 손들은 별도의 모임을 갖고 금년 중무에 대해 논의 후 귀가하였다.

[祭官 分定表]

직책명	구분	성명	직책명	구분	성명
初獻官	비인면장	李秉直	奉爐	儒林	趙昇鎬
亞獻官	本孫	申東信	司尊	儒林	劉昌鍾
終獻官	本孫	申完燮	奉爵	儒林	丘甲燮
執禮	儒林	丘漢完	尊爵	本孫	申鉉極
大祝	儒林	李豊鎬	贊引	本孫	申翰燮
陳設	儒林	金滿濟	直日	儒林	柳炳珍
奉香	儒林	具應會			

경백사(景白祠) 향사 봉행

2019년 4월 20일(토, 음력 3월 중정일) 11:00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경백사(경상남도 지방문화재 자료 234호)에서 향사가 유림 및 각 지역 평산신씨 종원들과 마을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경백사는 시조 장절공(壯節公) 신승겸(申崇謙)장군

진행하였고, 금년에는 용현초등학교 3학년 신한철, 신윤철, 가좌초등학교 2학년 신경준, 6학년 신승준 등 4명의 초등학생이 유복과 유건차림으로 참여하여 많은 유림과 종원들의 칭찬과 함께 인성교육의 본보기로 눈길을 끌었다.

올해 새로 선임된 신유균 도유사는 사천향교 조병갑 전교와 경백사 손상모 서원장을 중심으로 춘향제례에 정성을 다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경백사의 설립 역사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가 있었으며, 손상모 서원장은 사천향교 유림들과 평산신씨 종원들이 합심 단결하여 제례를 준비하여 주신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또한 사천향교 구암한시협회(회장 신현권)에서는 한시작품 11점을 전시하고 부회장을 맡고 있는 설송(雪松) 정백림(鄭頌林) 작가의 추모 장절공(追慕 壯節公)의 한시를 낭송하여 유림 및 종원들의 추모하는 마음과 제례의 정성을 더해주었다.

이러한 경백사 춘향제례 봉행 행사는 유림들과 지역민들이 벽상공신 장절공의 천추에 길이 빛날 위업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충·효·예를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追慕 壯節公(추모 장절공) -

太師肖像亮韶光(태사초상량소광)
 태사의 초상은 봄별에 빛나니
 救國忠臣千歲章(구국충신천세장)
 구국의 충신은 천년세월 본보기
 節義如山誰敢順(절의여산수감순)
 산 같은 절의는 누가 감히 따르겠는가!
 忠情似海豈非彰(충정사해기비창)
 바다 같은 충정 어찌 빛나지 않겠는가!
 爲君捐命明燈火(위군연명명등화)
 주군위해 목숨 바쳐 등불을 밝혔고
 開國盡誠牽聖王(개국진성견성왕)
 개국의 진성은 성왕으로 이끌었네
 死重泰山稱壯節(사중태산칭장절)
 태산 같은 죽음은 장절이라 칭하니
 後人追慕奉焚香(후인추모봉분향)
 후인의 추모는 분향으로 받드네

- 雪松 鄭頌林 -

장군단(將軍壇) 향사(享祀) 봉행



[태안사 스님들의 독경]

[종원들의 향사]

2019년 4월 20일(토요일, 음력 3월 16일) 11:00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동리산 태안사 후록(後麓), 장군단에서 대한 불교 조계종 태안사(주지 각초스님) 스님들과 유림, 군청관계자, 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종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사가 봉행되었다.

이날 향사는 태안사 장군청의 제례의식에 따라 각초스님과 종학, 계현 원로스님의 시조님 명복과 자손의 번성을 위한 독경이 있었다.

이어 본 손의 제사는 초현관 길순 대종중 도유사, 아현관 현주 참의공 장단 중중회장, 중현관에는 현유 전경백사도유사가 분정되어 정성껏 제사를 올렸다.

이날의 장군단 향사는 특별한 뜻이 있는 향사다, 2018년 대종중 정기총회에서 기타 토의사항에 장군단을 평산신씨 시조 유적지로 인정 결의하고 공식적으로 올리는 첫 제사였다.

향사 후 식사 장소로 이동하여 장군단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장군단 근택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모처럼 많은 자손들이 모여 올린 오늘 제사는 시조님께서 기쁘게 흠향하였으리라 생각 된다”고 말하고 “장군단 성역화 사업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단계 공사를 완공했으며, 2단계 공사도 성공적으로 완공하여 그간의 협조하여 주신 분들의 정성과 고마움을 비(碑)에 새겨 기념비 제막을 끝으로 마감하겠다고 말하고 2단계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이어 태안사 각초주지스님의 격려사와 대종중 길순 도유사의 축사가 있었고 덕양서원 공연용 원장의 격려사도 있었다.

동리산 태안사는 시조 장절공께서 유년시절 수학하고 무술을 연마하던 곳으로 장군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동리산 태안사에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서기 927년 대구 공산전투에서 고려 태조 왕건이 견훤군에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태조 왕건을 구출하기 위하여 장군께서 태조 왕건으로 가장하고 왕건의 가마를 타고 치열하게 싸우다 전사하니 (위왕대사) 장군의 용마가 장군의 머리를 물고 태안사 후원에 와서 슬피 울어 이상하게 생각한 태안사 동파스님께서 확인하니 용마가 장군의 머리를 물고 있음을 확인하고 예를 갖추어 봉두산 중턱 장군등에 안장하고 천년을 이어 춘추로 제사를 지냈다는 전설도 전해져 오고 있다.

장군단 향사는 매년 음력 3월 16일 봉행한다.

▶ 향사 헌성금(단위: 만원)

동원 10 장군단부도유사, 하섭 5 광주북구, 동인 5 담양, 봉섭 5 담양, 옥균 20 진천, 현주 10 아현관, 흥현 20 광주, 해식 5 곡성, 주호 10 남원, 동하 10 대구경북화수회장, 매곡중중 30 대구서구, 현대 50 용산단도유사, 현관 30 한림공중중도유사(세종시), 민주 10 장흥, 동진 5 남원, 세균 10 양평, 희철 5 양평, 종채 10 장흥, 재철 10 곡성, 명식 10 진주, 현모 10 완도, 기철 10 광명, 명섭 10 양평, 현용 20 진안, 동욱 10 서울중랑, 동균 10 가평, 용섭 10 가평, 동선 10 가평, 동훈 10 동막중중회장, 관섭 10 춘천, 대식 5 대전유성, 민철 10 대전충남화수회장, 진섭 5 대전중구, 주부공계여명공손 10 제정공파, 군산화수회 10, 민식 5 군산, 기춘 10 무주, 영섭 10 순천, 상민 5 거창, 영세 3 대전중구, 형식 50 광주전남화수회장, 근욱 5 남원, 홍식 10 거창화수회장, 현실 5 순천, 광섭 5 대전중구, 동학 5 곡성, 재준 10 무안, 봉호 10 무안, 수창 10 세종금남, 응철 10 장군단전도유사, 동한 5 대구서구, 인현 30 덕양서원도유사, 용섭 5 고창, 기호 5 곡성, 태순 10 정읍화수회장, 재권 10 광주북구, 정철 5 고창, 영남 20 고창화수회장, 현전 5 정읍, 기종 5 고흥, 윤식 5 전주, 정차 10 전주화수회장, 제철 5 고흥, 현삼 5 전주, 동선 5 고흥, 병균 10 전주, 창원화수회 50 회장(대철)현석 경숙 민식, 문식 10 전북화수회장, 현동 10 담양, 동철 5 완주, 배식 10 고흥화수회장, 동철 5 고흥, 인철 10 광주동구, 동주 5 정읍, 이승현 10 광주서구, 성식 5 김제, 현운 10 김제, 동길 10 광주동구, 동수 10 광주북구, 동준 5 광주광산구, 경현 5 광주북구, 동수 10 선원공중중회장, 성삼 10 광산화수회장, 동아 10 김제, 세균 5 정읍, 인균 5 김제, 광철 7 춘천, 영철 5 정읍, 동찬 10 가평, 영균 5 관악, 성철 5 가평, 현대 5, 종철 5 김포, 영섭 5 가평, 동국 5 가평, 동림 5 가평, 윤성 5 김제, 상철 5 서울동작, 형섭 5 가평여두중중, 부산경남화수회 100 회장(상수) 현용, 현석 5 담양, 홍균 20 구룡중중회장, 상균 10 서산, 일균 5 예산, 동호 20 전주, 복철 20 장수화수회장, 우혁 5 광주광산구, 현구 5 흥천, 용섭 5 가평순천공중중, 재원 5 예산, 경자 10 광주북구, 선균 10 이상공중중도유사, 옥남 5 전주, 옥국 5 전주, 동열 10 금산, 승철 10 가평, 현갑 5 경열중중도유사, 동우 5 가평, 형철 5 정읍, 정남 10 거룡광업회장, 혜경 10 목포 정남의 여, 현갑 50 경열중중도유사, 명식 10 광주서구, 현택 5 서울상도동, 백순 10 서울길동, 오균 10 서울송파, 성균 10 서울도봉, 동일 5 찬성공중중, 철수 10 정인공중중도유사, 태승 10 진사공파 봉화, 현수 10 참관공중중도유사, 완식 5 고양시, 상택 10 서울강동구, 완철 10 충북화수회장, 현대 20 제정공중중도유사, 김병용 2 춘강깎러리, 해철 10 감찰공중중도유사, 현덕 10 서울시화수회장, 동길 20 강원횡성화수회장, 광섭 2 횡성, 우현 10 (문)진사

공중중도유사, 동기 5 서울노원구, 경식 5 순천, 도석 10 고창, 현기 5 서울구로구, 은성 10 춘천, 락현 10 영암화수회장, 상우 10 서천, 장현 5 서울은평구, 해식 5 진해, 갑술 10 정읍, 현유 100 경백사전도유사, 영현 10 대사성공도유사, 현수 10 대중중고문, 유섭 50 고창, 균호 3 서울마포, 해남화수회 20, 현성 10 금천, 동호 5 순천, 현실 5 순천, 필주 3 이소, 흥균 20 대중중계례위원장, 동훈 50 동막중중도유사, 충섭 10, 대중중 30 향제비, 길순 200 대중중도유사 (무순) 총계 20,900,000원

▶ 물품 헌성

동인 찹쌀 1가마(500인분)/ 동호 떡 500인분/ 주호 찰밥80인분(전일 입제자)/ 동북 태안사선물(바루:공양그릇 5종세트)/ 철호 낙지 100미(전일 입제자)/ 추진위원회 타올 600장/ (무순)

▶ 화환

대중중 길순도유사/ 용산단중중 현대도유사/ 부산경남 화수회 상수회장/ 강원도화수회 용철회장/ 진주화수회 명식회장/ 사간공파중중 근택도유사/ 제정공파중중 현대도유사/판원사공중중 근택도유사/ 한림공중중 현관회장/ 찬성공중중 윤도유사/ 동막중중 동훈회장/ 구룡중중 흥균회장/ 동추공중중 갑술회장/ 광주전남화수회 형식회장/ 덕양서원중중 인현도유사/ (무순)

서울시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5월 30일(목) 11:30 종로3가 한일장(2층)에서, 2019년도 제48차 서울시화수회 정기총회가 용수 명예회장 등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용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현덕회장은 내빈을 일일이 소개하고 오랜만에 참석한 분들은 각자 소개토록 하여 모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다음 그동안 회 발전에 공이 많은 순철 상임유사와 평균 부회장에게는 특별 공로표창을 수여하였다. 이어 현덕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을 맡은 지 오늘로 2년이 되었다면서 그동안 자체 단합행사를 비롯한 시조 춘추향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 대중중 길순 도유사는 격려사에서 서울시 화수회는 우리 평산신씨의 본부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다 같이 일치단결하여 중중 발전을 위해 매진하자고 말하였으며, 용수 명예회장께서도 유교사상에 기초한 직위와 장소에 따라 사람의 도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유익한 말씀을 하였다. 또 문웅 전 회장도 격려사에서 자리를 모두 채우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반갑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회 발전을 위하여 서로서로 협력해서 돕자고 하였다.

이어 식순에 따라 전차회의록 낭독, 신승 감사의 감사보고와 2018년도 결산및 2019년도 예산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이어진 오찬에서는 길순 도유사의 견배 제의와 함께 맛있는 식사시간을 갖고 삼삼오오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기념촬영과 기념품을 나누어 주면서 폐회를 선언하였다.

광주·전남 화수회 제64회 정기총회 개최



2019년 4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 컨벤션센터 별관 델리하우스 대회의장에서 종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화수회 제6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대중중 신길순 도유사와 장군단 성역화 사업 추진 위원장 신근택 도유사, 대구·경북 화수회 신동하 회장, 사간공파 신근택 도유사의 축하 화환이 식장을 밝게 장식한 가운데 1부 기념식과 2부 오찬회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식전행사로 맘마스 하모니 아코디온 중년 여성팀 7명의 아름다운 선율은 한층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우리들은 고려태사 신승겸 장군의 후손들'이란 대형 플래카드를 벽에 붙여 회의장 전체가 우리 평산 신씨 후손이란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

형식 화수회장의 개회 선언 후 사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를 간략하게 진행 하고 내빈 소개 및 종원간 서로 인사 나누기가 있었다. 이어 회장 외 여러 도유사들이 단상에 마련된 시루떡 케익의 커팅을 한 다음 시상으로 한성윤공파 선원공 창현 중, 영광군 화수회장 언창 중, 무안화수회 청장년회장 봉호 중이 표창장과 부상 및 축하의 꽃다발 수여가 있었다.

형식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에는 전 종원의 소원

이고 숙원 사업이었던 전남 곡성군 죽곡면 태안사 후록 장군등에 1100여 년 동안 모셔왔던 장군단을 대중중 근택 부도유사께서 『유적지 장군단 성역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앞장서고, 대중중의 지원과 전국 각지의 중원들이 참여해주신 표성금으로 1차 공사를 마무리하였다고 말하고, 우리 모두 더 열성적으로 협조(2차공사에)하여 후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겠다고 말하였다. 식순에 따라 사무국장의 중사 보고와 현철·영걸 감사의 감사보고, 재무보고사항 등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기타사항으로 용산단 도유사의 올해의 계획과 사업 방향, 덕양서원 도유사으로부터 올 사업 계획과 추진 현황을 들었으며, 장군단 용환 사무처장으로 부터 장군단 성역화 추진과정과 공사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진지하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찬을 하며 정담을 나누는 후 산회 하였다.

[제64회 정기총회 표성금품 내역]

수 입 부					
대중중	200,000	하섭	대유사	100,000	
장군단 종중	500,000	동수	부회장	100,000	
용산단 종중	500,000	명식	지문위원	100,000	
덕양서원	200,000	재열	무안군 화수회장	100,000	
충남화수회	100,000	사현	화수회 총무	100,000	
해남화수회	200,000	재준	무안군 부회장	100,000	
광신화수회	100,000	석원	화순군	100,000	
고흥군화수회	100,000	홍현	부회장	100,000	
한성윤공파서원공경친회	100,000	동원	장성군 회장	100,000	
영광정인공 영광종회	100,000	종남	무안 망운	100,000	
담양군화수회	100,000	동언	고흥군 사무국장	50,000	
영암군화수회	100,000	창현	광주 방림	30,000	
여수화수회	100,000	광석	광주 동림	50,000	
목포시화수회	100,000	병수	부회장	50,000	
형식	광주 전남화수회장	500,000	동인	담양군 가시문학면	50,000
언창	영광군 화수회장	300,000	기안	상임유사/광산 총무	50,000
현중	명예회장	100,000	규담	영광군	50,000
창문	목포	100,000	영걸	감사	50,000
홍섭	광주	100,000	석준	무안 망운	50,000
동우	부회장	100,000	훈철	광주 중흥	50,000
성삼	부회장	100,000	동언	고흥총무/용산단 대유사	50,000
경현	상임유사	50,000			
	소계	3,850,000		소계	1,530,000
수입 합계					5,380,000

지 출 부			
책자 150부	430,000	떡값	200,000
식대 70명 프랑포함	1,400,000	타올	525,000
시상품 3명	300,000	우편발송	99,330
지출 합계			2,954,330

- 축하화환 :

대 중 중 도유사 신길순 시간공파종중 도유사 신근택
 대구경북화수회장 신동하 표충재종중 도유사 신현문

- 기 타 : 수길 - 한약 3첩

재준 - 황토나라 양파즙 80상자
 권현 - 꽃다발 3개

영주시화수회 정기총회 포항제철소 관광



2019년 4월 16일 백두대간 소백산맥 남쪽기슭 선비의 고을 영주시화수회 신용식 회장 외 42명은 2019년도 정기총회 겸 친목도모를 위하여 포항제철소를 방문하기로 하고 이른 아침 설레는 마음을 안고 부지런히 달려 오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기념관 홍보팀장의 안내에 따라 곳곳을 살피면서 규모와 장엄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의 경제개발 초석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역동하는 포항제철소'라고 자랑스러워하는 설명에 모두들 기립박수로 환영하면서 감격스러워 하였다.

관람후 기념관 회의실에 도착하여 용식회장은 영주시화수회 정기총회를 선언하고, 준비하였던 내용 모두를 박수로 통과시키고 고문단과 이사진도 변경 없이 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용식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화수회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 협조하여 주신 회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렵지만 향후 합심 노력하여 여타 화수회 보다 더더욱 발전하는 모범적인 화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일정에 따라 포항 죽도시장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즐기면서 삼삼오오 정담을 나누고 화목을 다진 후 귀향 길에 올랐다.

충주시화수회 신립장군 및 팔천고훈 위령제



지난 6월 1일(일요일, 음력 4월 28일) 10시 충주시 탄금대 팔천고훈위령탑 앞에서는 제 427주기 신립 장군의 팔천고훈들의 위령제가 충주문화원 주관으로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충주시장(조길형)을 비롯 이지역 국회의원(이종배), 각계 유관단체장들과 주민들이 참석하고, 평산신씨 중중에서는 대중중 용수고문, 판사공파중중 세원도유사, 충북화수회 완철회장, 충주화수회 영준회장 등 많은 종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제를 올리고 뉘을 기렸다. 대중중 길순 도유사도 추모 화환을 보내어 고인들의 명복을 빌었다.

팔천고훈위령제는 임진왜란 당시 도순변사 신립(申 砬, 文僖公派 20世)장군이 장졸 8천여 명과 함께 왜군과 싸우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장렬히 순절한 이날에, 그분들의 영혼을 달래고 뜻을 받들며 고귀한 뉘을 기리고자 매년 팔천고훈위령탑 앞에서 열린다.

대전효문화뿌리축제 2019년도 제11회 개최 안내



[효문화뿌리축제에서 입장하는 모습]

전국 효(孝)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거국적으로 시행하는 제11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가 국내 유일의 성씨테마 공원인 대전뿌리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열립니다. 우리 평산신씨 문중에서는 2015부터 4년 연속 수상하고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대전·세종·충남화수회에서는 올해도 대중중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아래 동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자 합니다. 파중중 및 유적지 도유사님을 비롯 시·도화수회장님과 충청지역의 시·군화수회장님들께서는 종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어 평산신씨 문중이 축제에서 크게 빛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축제기간 : 2019. 9.27(금) ~ 9.29(일) 3일간 (오전 09:30 ~ 17:30)
2. 장소 :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79(침산동) 뿌리공원 일대
3. 우리문중 집결(문중 퍼레이드)
 - 장소 : 뿌리공원 내 효문화 마을 앞 (문장 깃발 107번)
 - 일시 : 2019.9.28(토) 09:30

4. 기타 상세한 축제행사 주요내용은 대중중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5. 연락처 : 대전·세종·충남화수회
042) 253-7625 / 회장(신민철) 010-9454-9151

종원동정

대중중 흥균 제례·계보위원장 성균관 부관장 수임(임명)



대중중 흥균(興均, 정언공파 32世) 제례·계보위원장은 2019년 5월 28일 성균관(成均館) 부관장(副館長)직을 수임(受任)하고, 성균관 공부자(공자)의 사당인 대성전에서 고유제(告由祭)를 올렸다. 본인으로서도 크

나큰 영광이지만 평산신씨 문중에도 기쁨이 아닐 수 없다. 흥균 부관장은 대중중에서 제례위원(장)으로 6여년간 봉사하면서도 성균관 석전교육원에 수년간 수강과 기거동작 등을 익혀 중중 제의례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며, 성균관에서는 사례편람, 전례사과정, 예절강사과정, 석전대제 이수자과정, 등 여러 과정을 수강한 바 있으며, 전례사와 예절강사로 활동하던 중 이번에 부관장을 수임하게 되었다.

흥균 宗은 일찍이 교육계에 몸담아 30여년간 교직에 봉사 하면서 교육청 간부 등을 역임하고 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하였다. 재직하는 동안 청소년 교육과 학교 경영에 많은 기여로 교육계에 남다른 공을 세워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또 宗은 대한민국 갑자서회, 서예비림협회 회원으로서 초대작가,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서예 국제교류전에도 수회 참여하고, 매년 전시회에 서예작품을 출품하는 등 서예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여 왔고, 지금도 팔순이 훌쩍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은 대중중에 자랑스러운 인재임에 틀림없다.

국가유공자 증서와 보국훈장 삼일장 수상 신한철(申漢澈, 정언공파 34世)



정언공파 현규(鉉圭) 상임유사의 장남인 신한철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면서 국가유공자 증서와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상하였다.

宗은 인하대학교 출신 ROTC 장교로 출발하여 국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부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육군의 기계화 부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금년 3월에 예편하면서 수상하게 되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과 충성심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결과로서 그간의 노고와 수고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



인사

신임 상임유사(新任 常任有司)



- 전서공파중증 도유사
- 申東錫(35世)
- 경기도청근무 홍조근정훈장
전서공파중증감사 김포화수회이사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276
- 2019년 4월 28일자 선임

※ 전임 : 전서공파중증 도유사 사임(일신상 사유)
申泰華(신태화)

변호사(辯護士) 시험 합격

신승희(申承熿, 사간공파34世)



중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는 아버지 현운(鉉允, 사간공파 33世)과 어머니 김형미(金亨美, 教授, 理學博士)사이에서 1남 2녀중 장녀로 태어나 미국 워싱턴에 있는 THOMAS WOOTTEN high school을 최고성

적으로 졸업상을 수상하고 메릴랜드 주 지사로 부서는 최고 우수상을 수상, 귀국하여 연세대 국제대학과, 성균관대 로스쿨을 각각 졸업하고 2019년에 시행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연수가 끝나는 대로 미국변호사 시험에도 응시할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祖父가 마포구화수회 상군(相均, 32世)회장인 종은 할아버지의 손녀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욱 효도하겠다고 하는 요즘 보기 드문 신세대 여성이다. 앞으로 승승장구하여 본인의 영광은 물론 평산신씨 가문을 더욱 빛내기를 기대한다.

변호사(辯護士) 시험 합격

신현수(申鉉守, 判事公派 37世)



경북 청송군 파천면 중평리가 고향인 현수宗은 아버지 재두(在斗, 판사공파 36世)와 어머니 권건희(權虔姬)여사의 3녀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경북대학 법학전문대학원8기로 졸업한 후 2019년 4월 26일 실시한 제8회 변호

사 시험에서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宗은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지혜로워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였고 초중고교 및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재능이 출중하여 앞으로의 기대가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평소 부모님을 생각하는 가늠하고 속 깊은 마음은 대견하다고 한다.

향후 정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길 바라고, 평산신씨 가문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

비오는 날 임진강역에서

신 용 기
(광주전남화수회)

희망, 풍경이 있고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임진강역
대형 간판이 인상 깊고
승강장이 적당히 길다
힘차게 달려온 통근열차
도라산 역으로 향하는데
저 길로 쪽 달리면
바라는 길 열리려나

나는 눈이 아프도록
철길을 내려다보며 소망한다
역사가 숨쉬는 평산 시조님 유적지
태사사 동양서원 참배할 그 날을!

우리민족의 아픈 현실
남북을 가로 흐르는 강물
영롱한 물방울처럼
임진강 물바다에 다다르면
반짝이는 빛 다시 볼 수 있겠지

[東陽尉 申翊聖 기행문①]

금강산 유산기(遊山記)

▶ 금강산 유람을 떠나다

성문을 나서던 날 비가 심하게 왔다. 관왕묘에 이르자 천장(天章) 형제와 건중(建中)이 마중하여 같이 술을 마셨는데, 천장이 내 부채를 찾더니 절구 한 수를

써 주었다. 좌상 대감이 광릉(光陵)을 살피고 돌아왔고, 지국(持國) 장유(張維)도 만났는데, 부채의 시를 보고 한 글자를 고치고 갔다.

진중은 보제원(普濟院)까지 나를 따라와 비가 내리는 속에서 풀밭에 우산을 펴고 앉아 술을 마셨다. 짐 속의 좋은 종이를 꺼내어 절구 한 수를 적으니 청초하여 읊조릴 만하니 아름다운 공자라고 칭찬하기에 충분했다.

종암(鐘巖)에서부터 쏟아 붓는 듯이 비가 내리고 밤은 철쭉같이 캄캄하여 종들이 길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산골짜기 사이로만 갔다. 산 계곡이 험악하고 거세게 흐르는 계곡물은 무릎까지 올라왔다. 약한 나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무서운 마음마저 들게 하였다. 얼마 있으니 반딧불이 수풀 우거진 사이에서 반짝거렸고 순식간에 천만 점을 이루어 마치 산에 등을 단 듯, 나무에 불을 놓은 듯하여 바라보니 기이하기 짝이 없었다. 십리쯤 가니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닭 우는 소리가 들리니 바로 도봉서원(道峯書院)으로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였다. 밤이 거의 반이나 지나간 때였다. 평생 처음으로 겪는 어려운 길이었지만 스스로 속되지 아니하였다. 밤에 강당에서 묵었다.

出城日雨甚。到關王廟。天章兄弟與建中邀飲。天章索我扇。題贈一絕。我左相自光陵奉審還。持國亦會。見余扇頭詩。易一字而去。建中追余普濟院。雨中張傘披草而坐。舉白以侑之。發行中美牋書一絕。清楚可詠。足稱佳公子。自鐘巖雨下如注。夜墨如漆。僕夫迷失路。但向山峒間行。山谿險惡。狂流沒膝。弱驢不能前。令人心怖。俄螢火自林莽中閃閃。條成千萬點如燈山火樹。見之奇絕。行十許里。遙聞鷄犬聲。卽道峯書院洞口也。夜已過半。此平生第一行難。而亦自不俗。夜宿講堂

▶ 도봉서원에 머무르다

아침에 침류루(枕流樓)로 나와 보니 누대 아래의 계곡은 빗물로 갑자기 불어나 흐르는 소리가 사람들의 말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대단했다. 도봉산의 푸르름이 처마와 기둥 사이에 서려있고 바위들은 우뚝 튀어나와 참으로 온갖 바위들이 그 빼어난을 다투고 온 골짜기 계곡물물은 다투어 흐른다고 할 만하였다. 저녁에 서원의 학생인 서형리(徐亨履), 서홍리(徐弘履), 윤문거(尹文舉), 윤선거(尹宣舉), 조수익(趙壽益) 등이 마중 나왔는데 모두 예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다. 짐 속에 있는 술을 꺼내 취할 때까지 마셨다. 학곡(鶴谷) 홍재상이 서원의 학생들에게 지어주었다는 시에 화답을 하기도 했다.

비가 와 서원에서 사흘이나 머물렀다. 막 떠나려는 차에 의창(義昌)이 필마로 달려와 누대 위에서 술동이를 열고 기분 좋게 취하고서 함께 영귀문(詠歸門)으로 나왔다. 시냇가에 도착해 바위에 걸터앉아서는 피리 부는 종에게 두세 곡을 불게 하였는데 온 계곡이 그 소리에 답하는 듯 했다. 곧 일어나 절하고 헤어졌다. 신선 의 산에 닿지 않았는데도 이미 흥은 넘쳤다.

걷다가 힘들면 시냇가로 내려가 풀 위에서 쉬면서 어린 종에게 그물을 던져 은어를 잡게 하고 그것을 삶아서 술안주로 먹기도 했다.

밤중에 포천의 앞 시내를 건너려 했으나 수심이 깊어 건널 수가 없었다. 포천현 사람들이 가마를 가져와 물길을 가로질러서 현사(縣舍)에 닿았다. 현사는 한적하고 밥을 차려 주는데 산나물, 들나물들이 모두 정갈하니 산수객(山水客)의 공양이었다. 이날 철피리를 잃어버렸는데 노복들이 시끌시끌했다. 잃은 사람이 있으면 좁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다시 말해 무엇하랴.

금수정(金水亭)은 철원의 수령 김화(金燾)의 별장으로 백로주의 물이 여기에 이르러 아주 커진다. 맑은 시내 가운데 우뚝 솟은 절벽은 마치 병풍을 펼쳐 놓은 듯 몇 리에 이어져 있었다. 연못 가운데 소머리 모양의 바위는 그 이름이 우두연이다. 열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바위는 가운데가 요자(凹字) 모양으로 움푹 패어 술항아리 같았다. 봉래(蓬萊) 양사언(楊士彦)이 절구 두수를 새겨놓았다. 양사언은 일찍이 이곳에서 거처했는데 사암(思菴) 박순(朴淳)이 은퇴하여 살던 곳이 하류에 있어서 배를 타고서 왕래했다고 한다.

삼부연(三釜淵)은 박연(朴淵)에 비해 더욱 기이하고 웅장하였다. 깊은 골짜기가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하여 오래 앉아 있기 어려울 정도였으니, 용이나 이무기가 살만한 곳이었다.

김화(金化)의 수령인 황영(黃泳)과는 예전에 약속이 있었다. 현의 재실(齋室)이 깨끗하여 밤에 술을 마시니 만족스러웠다. 취중에 벽에 쓰인 청음(淸陰)의 시를 보고서 화운하였다. 금성의 경계에 들어서니 산세는 더욱 험하고 물살은 더 거세었다. 가파른 돌길을 올라 백여길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래로 여울이 흐르고 여러 산들이 뺨뺨하게 솟아 있어 마치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우리 일행은 가장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곳의 이름은 관원전(官員轉)이라고 한다.

금성의 포상각(苞桑閣)은 아주 좁고 누추하였지만 벽위의 시들은 거의 수백 편이나 되었다.

수령이 나에게 시를 남기기를 청해 나는 장난삼아, “벽에 틈이 하나도 없으니 새로이 누각을 지으면 당연히 시를 지어 드리리다.”

라고 대답하였다.

통구(通溝)는 산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경계가 넓게 트여 있는데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행궁 터와 어정이 있는데 세조께서 오대산 금강산에 행차하셨을 때 머무르던 곳이라고 한다.

단발령 위에 두 그루의 회나무가 있어 오랫동안 앉아 쉬었다. 마침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데 금강산의 한쪽 부분을 바라다보니 온통 은색으로 물들었다. 여기서부터는 별천지이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였다.

朝出枕流樓。樓下溪水。得雨暴長。聲甚壯。至不辨人語。道峯蒼翠。落簷楹間。石勢磊磊。眞所謂千巖競秀。萬壑爭流。晚邀院生徐氏亨履，弘履。尹氏文舉，宣舉。趙氏壽益。皆舊要也。發行壺飲。至醺然已。和鶴谷洪冢宰贈諸生詩以留之云。關雨留書院三日。將發義昌匹馬馳到。開酌於樓上。酒酣携出詠歸門。臨流坐石上。令篋奴吹鐵篋三兩闕。厓谷皆應。遽起揖別。不到山。興已悠然。行倦便臨

長川. 藉茅而坐. 令童僕張網. 網銀鱗. 亟烹之佐酒. 夜渡抱川前川. 川深不可涉. 縣人具輿. 絕流到縣舍. 蕭然如村巷. 進飯山蔬野蕨精楚. 眞山水客供也. 是日逸鐵筵. 僕夫頗謹. 失之必有得之者. 又何足云. 金水亭. 卽金鐵原嬖別墅也. 白鷺洲之水到此方大. 絕壁插清流如屏障者數里. 潭心巖石如牛頭. 亦名牛頭淵. 可坐十餘人. 中凹自成樽形. 楊蓬萊士彥刻兩絕. 蓬萊曾亦卜居此地. 朴思菴淳退居之所在下流. 以扁舟往來云. 三釜淵比朴淵尤詭壯. 洞壑幽邃. 白晝陰暄難久坐. 龍蛇窟宅也. 金化宰黃泳. 舊要也. 縣齋頗精潔. 夜酌甚洽. 醉中見壁上詩. 卽清陰所題. 率易和之. 入金城界. 山益峻而水益駛. 登危磴. 俯臨百餘丈. 下有激湍. 群山簇簇如畫圖中. 吾行在最高處. 地名官員轉云. 金城苞桑閣隘陋. 而壁上詩無慮數百篇. 主宰請余留題. 余戲答云壁間無隙地. 改構當爲賦之. 通溝. 卽入山門戶. 境界寬闊. 而居人甚稀. 有行宮遺址及御井. 流傳 光陵幸五臺金剛時. 住駕於此云. 斷髮嶺上有雙檜. 坐憩良久. 時日西斜. 金剛一面. 望之如鎔銀色. 自此世界自別. 覺胸次灑然.

☞ 다음 호에 계속

생활건강



노인증후군 노쇠와 근감소

노인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퇴행성 골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서너 가지씩 가지고 있다.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복용하는 약물가지수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질병 조절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기력이 없거나 힘들어 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 이런 저런 검사를 해도 뚜렷한 원인 질병이 나오지 않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 병은 없다고 하는데 기운은 없으니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오거나 한약을 찾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반짝 효과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곧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노쇠와 근감소증을 들 수 있다. 노쇠는 흔한 노인증후군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 여러 장기들이 생리학적 예비력이 감소하여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능력이 줄어든 현상이다. 호르몬의 감소, 장기의 기능 감소 등이 원인이다. 근감소는 근육량 뿐만 아니라 근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노쇠와 근감소는 동일한 의미는 아니지만 근감소는 노쇠의 주요한 이유가 된다. 노쇠한 경우에는 보행 장애나 낙상, 요실금, 인지 장애 등 노인성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러므로 노쇠와 근감소를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노쇠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력 청력 인지기능 등 포괄적 노인평가가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간단한 'FRAIL질문'으로 단순 선별검사를 하기도 한다.

- (1) Fatigue(피로) : 피로합니까?
- (2) Resistance(저항력) : 1계단 오를 수 없나요?
- (3) Aerobic(호기성) : 1블럭을 걸을 수 없나요?
- (4) Illnesses(질환들) : 5가지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나요?
- (5) Loss of weight(체중감소) : 지난 6개월간 5% 이상 체중 감소가 있나요?

이 5가지 질문 가운데 3개 이상 해당되면 노쇠이고, 1~2개가 해당되면 노쇠 전단계이다. 근감소는 DEXA나 MRI로 근육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진료실에서 흔히 쓰이기는 힘들고 실제로는 악력이나 보행속도(0.8m/s)를 측정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이 32cm가 안되는 경우 근감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노쇠와 근감소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과 영양 섭취이다.

유연성운동, 근력운동(저항성운동), 지구력운동(유산소운동), 균형운동이 모두 필요하다. 근감소의 치료에는 자전거타기, 스쿼드, 계단오르기 같은 운동이 근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육류나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칼슘과 비타민D 보충도 필요하다. 노인은 소화와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편이 더 좋다. 골다공증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근감소는 잘 모르는 분이 많다. 근육은 우리 몸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기관이고 30대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하여 60세가 넘으면 감소 속도가 빨라진다. 1년에 1%씩 감소한다. 60세 이상 인구의 약10%, 80세 이상 인구에서는 약50%가 근감소이다.

60세 이상 사람들은 골다공증과 마찬가지로 근감소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를 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병으로 오래 누워있거나 요양원에서 누워서 생활하게되면 근감소의 속도가 더 빨라져서 보행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특별하게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히 몸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보다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반려견과 함께 운동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하루에 한 시간씩은 꼭 산책을 하도록 하자. 뇌도 마찬가지로지만 근육과 뼈도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위축되고 기능이 떨어진다. 노쇠와 근감소는 영양제나 한약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고 운동하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으로 먹고 많이 움직여야한다.

[문화부 제공]

인터넷으로 족보 보기

인터넷족보 대중중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종친회원이 되시면 『족보보기』에서 나와 가족의 족보를 볼 수 있으며, 신규등재, 수정, 변경, 추가, 삭제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www.pyeongsan.com>

종보에 게재할 원고 모집

- 시, 수필, 공트, 기행문 등(원고지 10매 이내)
- 종사와 관련이 있으면 환영
- 채택된 원고만 게재함.
(문인협회 등단자 우선함)
- 보낼 곳 : 평산신씨대중중
(이메일: pyongsan777@naver.com)

“종원동정” 란 이용 안내

대중중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종보에 '종원 동정'란을 통하여 시조 장절공의 후손들의 사회 활동 상황을 접수하여 등재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인적사항 : 성명, 파, 세, 전화번호
- 내용 : 귀감이나 모범이 되는 내용들(수훈, 자격증 취득, 합격, 직위취임, 선행 등)
- 보낼곳
FAX : 02)776-7990
E-mail : Pyongsan777@naver.com
홈페이지 : <http://www.pyeongsan.com>

2019년 8월 ~ 2019년 10월 행사 안내

- 8월 31일 장학금 지급
- 9월 17일 덕양서원 추향사(음 8월 중정일)
- 9월 27일~29일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 9월 29일 모영재 향사(음 9월 1일)
- 10월 6일 승의전 추향사
- 10월 7일 시조 장절공 추향사 (음 9월9일)
- 10월 17일 용산단 향사(음 9월 중정일)
- 10월 20일 183호 종보 발행 예정

종보 성금 내신 분 (2019. 4. 20 ~ 6. 30)

개 인			
신규식 경기도 수원시	20,000	신영균 전남 곡성	20,000
신웅철 경기도 파주시	20,000	신동직 경기도 연천군	30,000
신동철 서울시 중랑구	30,000	신균호 서울시 마포구	30,000
신광휴 경북 영덕군	20,000	신계순 서울시 동대문구	30,000
신현석 전북 익산시	20,000	신용준 제주도 동광로	50,000
신현석 경기도 성남시	20,000	신승수 광주시 북구	20,000
신재권 대구시 달서구	20,000	신왕섭 전남 무안군	20,000
신상균 서울시 마포구	100,000	신용섭 경기도 이천시	20,000
신승동 경기도 과천시	20,000	신현주 서울시 강동구	100,000
신현석 경기도 광주시	30,000	신동성 경남 창원시	20,000
신원균 인천시 미추홀구	30,000	신진철 ?	50,000
신동건 서울시동대문구	30,000	신순자 재일동포	55,000

파 종중	
표충재종중	100,000

소 종중			
진사공파 김천종중	30,000	문희공파 창원서곡종중	40,000
제정공파 약목종중	100,000		

시도 화수회	
제주도화수회	100,000

시군구 화수회			
서천군화수회	50,000	영덕군화수회	200,000
광산군화수회	50,000	무안군화수회	30,000
영주시화수회	100,000		

추천묘소참배	
신현대 제정공파	100,000
도유사의외32명	

합계 1,705,000원
누계 7,905,000원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종중·시·군·구화수회 : 20부 년 30,000원
-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1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중중)
인터넷족보비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중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010-9357-5337

“알 림”

다음 종보는 2019년 10월 20일 발행 예정입니다.